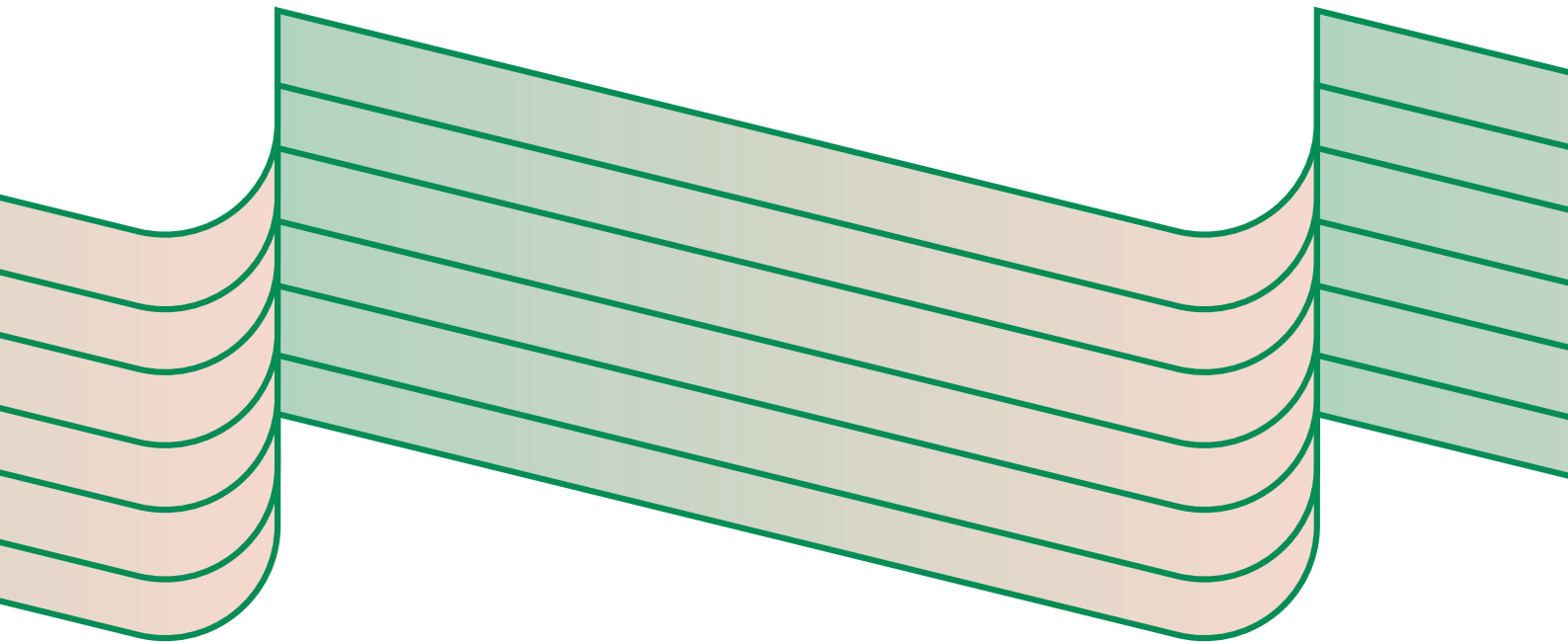


 학생독립만세

청년에게 소득을
투자자에게 수익을

학생독립만세 소득공유 후불제 혁신 리포트 2020



2020

Income Share Agreement

Table of Contents

| | | |
|-----|-----------------------------|----|
| 01. | 들어가며 | 1 |
| 02. | 소득공유 후불제란? | 2 |
| 03. | 소득공유 후불제의 장점 | 3 |
| 04. | 소득공유 후불제의 기원 및 전개: 미국을 중심으로 | 4 |
| 05. | 소득공유 후불제 생태계 | 7 |
| 06. | 소득공유 후불제 국내 현황 | 10 |
| 07. | 학생독립만세의 소득공유 후불제 | 11 |
| 08. | 제언 | 14 |
| 09. | 학생독립만세에 대하여 | 15 |

들어가며

우리나라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이수율은 69.8%로 OECD 국가 중 2위입니다. 그러나 졸업자 취업률은 전문대학 77%, 대학 77%로 OECD 평균(각각 81.9%, 84.3%)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¹ 전통적인 고등교육 졸업장이 취업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COVID-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술의 수명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 수요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중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직자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인의 경력 전반에 걸쳐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제 새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첫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의 구직 관련 경제 부담은 생애 그 어느 단계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학 등록금으로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교육비를 마련해야 노동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준비생 상당수는 교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OVID-19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며 위협하고 있어, 취업준비생의 현금유동성은 더욱 줄어들고, 20대의 부채규모는 증가 추세입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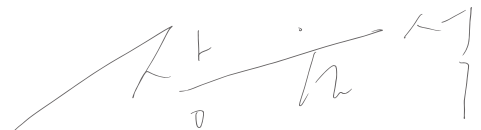
기존 시장과 시스템이 취업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국비지원 취업교육을 늘리거나, 대학 학자금 및 생활비 용도의 대출금 제도를 마련하고, 상환시기나 금리를 조정해주

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비지원 교육은 여전히 교육과정의 한정적이고, 대출은 미취업인 상황에서 기한이 도래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업교육을 위한 초기 비용을 없애 적합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요?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게 되어, 취업을 통한 경제적 이동성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비 지불을 취업 이후로 미루고, 취업 이후 소득에 비례해서 후불로 납부할 수 있는 금융 모델이 바로 소득공유 후불제, 즉 ISA(Income Share Agreement)입니다.

학생독립만세는 2018년부터 2020년 10월 현재까지 소득공유 후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학생독립만세가 소득공유 후불제를 실행하고 발전시켜온 과정에서 얻은 배움과 교훈을 공유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생소한 소득공유 후불제의 역사, 가치, 그리고 전망을 나누고자 첫 번째 <학생독립만세 소득공유 후불제 혁신 리포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포트를 '학생이 학생만의 힘으로 원하는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교육 금융의 혁신에 관심있는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날로 커져가는 청년층의 교육비 부담 문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학생독립만세 CEO 장윤석

1. 교육부 'OECD 교육지표 2020' 2020.9.8.
 2. 이데일리, '늘어만 가는 구직기간과 부채에 신음하는 청년들' 2020.9.21

소득공유 후불제란?

소득공유(ISA) 후불제

소득공유 후불제Income Share Agreement(ISA)란, 선불로 소액을 내거나 무료로 교육을 먼저 받고, 교육을 마친 후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내는 지불방식입니다.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소득공유 후불제(ISA)는 대부분 아래와 같은 핵심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 | |
|--|--|
|  <p>소득공유 비율 (Income Share Rate)</p> | <p>취업 후 납부하기로 약정한 소득의 고정 비율 예) 세전 월급의 15%</p> |
|  <p>납부 횟수 (Number of Payment)</p> | <p>납부하기로 약정한 횟수 예) 총 24회 약정된 납부 횟수가 끝나면 납부 의무가 끝나는 것을 보장합니다.</p> |
|  <p>납부 의무 최소 소득 (Minimum-Income Threshold)</p> | <p>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최소 소득 금액 소득이 생기더라도 일정 금액보다 낮을 경우,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p> |
|  <p>최대 납부 금액 (Payment Cap)</p> | <p>누적 납부 최대 한도 금액 소득공유 후불 계약을 맺고 교육을 이수한 뒤, 높은 연봉으로 취업한 사람이 비율제에 따라 지나치게 큰 금액을 내는 일이 없도록 납부 한도 금액을 보장합니다.</p> |
|  <p>납부 기간 (Term Limit)</p> | <p>납부 기간 예) 2년 납부 의무가 유지되는 기간.</p> |

납부 횟수, 최대 납부 금액, 납부 기간 세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계약 만료

소득공유 후불제의 장점

청년 재정에 유연하고 새로운 선택지 제공

소득공유 후불제는 모든 학생에게 최상의 선택지는 아닐 수 있으나, 대출 등 여타 금융 선택지가 충분치 않은 청년층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줄 수 있다는 장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입시, 취업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러한 자금을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조달해야 할 경우 대출 또는 아르바이트로 선택지가 좁혀집니다. 먼저 대출의 경우,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한 청년층은 제1금융권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의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출이 가능해도 취업을 못하거나 중간에 실직하더라도 상환 의무가 지속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만약 상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받습니다. 대출의 리스크를 피하고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많은 시간과 체력을 할애해야 하므로 취업까지 소요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소득공유 후불제를 이용하면, 교육을 받은 후 취업을 통해 생긴 소득의 일정 지분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만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이직/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납부 의무가 없어 대출보다 유연하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과는 다른, 유연한 금융 선택지가 더해진다는 점은 청년들의 성장기회를 앞당기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개인의 리스크 최소화

소득공유 후불제는 개인의 미래 가능성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배우고 취업 후에 내는 방식은 구직기간을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미취업시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개인의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을 때만 상환의무가 생기므로 취업이 되기 전까지는 교육비 상환을 걱정하지 않고 교육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제공 촉진

고등교육 및 취업교육의 성과 지표를 취업 후 소득이라고 본다면, 소득공유 후불제는 교육의 성과 만큼 지불하는 합리적인 지불 방식이 됩니다. 즉, 소득공유 후불제를 통해 교육기관과 학생은 서로 맞춰진 유인(aligned incentives)을 갖게 됩니다. 교육기관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의 직무 능력이 향상되고 양질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해외의 대학, 취업교육 기관, 그리고 교육 관련 정책 입안자 및 싱크탱크들이 소득공유 후불제를 기존 교육비 지불 방식의 대안으로 빠르게 도입하고 폭넓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유 후불제의 기원 및 전개

미국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1955년 교육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다룬 논문에서, 당시 높은 고정 이자율을 내는 미국 대학 학자금 대출의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투자자(대학 또는 기관)가 학자금이 필요한 학생의 미래 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한 지분을 사고, 학생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정해진 기간동안 이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³ 이 방식은 학자금을 ‘부채를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꾸고, 개인의 미래 소득 일부를 인적 자본으로 해석한 것으로, 오늘날 ‘소득공유 후불제(Income Share Agreement)’의 기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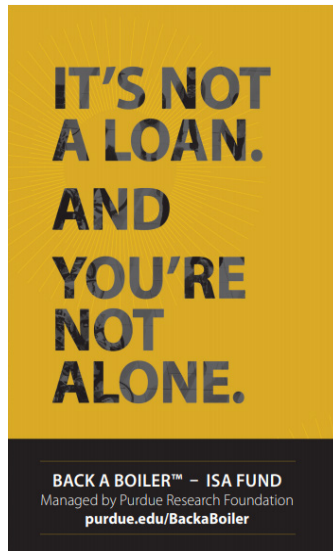
대학학자금과 소득공유 후불제

미국에서 소득공유 후불제가 실제로 도입된 배경에는 오랜 기간 미국 사회의 중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대학 학자금 부채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대학 학자금이 고등교육 기회에 장애물이 되어 경제적 이동성(economic mobility)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⁴ 그러나 공공부문이 보조금 등을 확대해서 학자금 부채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학이 직접 학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변화시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소득공유 후불제 개념을 주창한 이후, 1971년 미국 예일대가 이를 최초로 도입한 ‘학자금 연기제(Tuition Postponement Option)⁵’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코호트(cohort) 방식의 소득공유후불제로,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이후 자신이 속한 집단 전체의 학자금이 상환될때까지 각자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예일대는 1978년에 이 제도를 중단, 1999년에는 모든 학생의 상환 의무를 취소하고 계약 의무도 해지했습니다.

3. Milton Friedman, "The Role of Government in Education", *Economics and the Public Interest*, 1955
4. WSJ, "Fed's Dudley Says High College Costs Lower Economic Mobility", 2017.12.7
5. A Tax Shelter for Students: Yale's Tuition Postponement Option, 81 *Yale Law Journal*, 1972

퍼듀대 성공과 소득공유 후불제의 확산



퍼듀 대의 ISA프로그램 "Back a Boiler" 브로슈어 일부. 학생 중심의 소득공유 후불제를 추구했음을 슬로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일대의 첫 시도가 실패한 이후,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좀더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 퍼듀대는 소득공유 후불제 기업 Vemo Education과 손잡고 "Back a Boiler" ISA Fund⁶ 를 출시했습니다. 퍼듀대의 ISA 펀드는 학생의 전공과 대출 금액별로 미래 소득을 평가하여 납부 비율 및 기간을 정하고, 납부 최소 소득 기준(연 2만달러)과 최대 납부 한도(자금조달액의 2.5배) 등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보호 장치들로 인해 퍼듀대의 ISA 펀드는 학생들에게 기존 학자금 대출보다 저렴한 대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운용하는 퍼듀대 리서치 재단의 자원 외 총 1천 2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여, 2018년 12월에 "Back a Boiler Fund II"를 출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퍼듀대는 소득공유 후불제 성공 경험을 다른 대학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퍼듀대에 뒤이어 Colorado Mountain College, 펜실베이니아주의 Lackawanna College와 Messiah College, 뉴욕주의 Clarkson University, 버몬트주의 Norwich University 등이 소득공유 후불제를 도입했습니다.⁷

6. <https://purdue.edu/backaboiler/index.php>

7. <https://askwonder.com/research/market-size-income-share-agreement-market-hvjoak8iy>

코딩 부트캠프와 소득공유 후불제의 시너지

미국의 소득공유 후불제는 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2010년대 이후 코딩 등 몰입형 취업교육기관인 부트캠프(bootcamp)가 온/오프라인에서 확대되면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소득공유 후불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트캠프의 경우 취업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며, 교육생의 취업 열망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교육을 통한 스킬업 효과 및 고연봉 취업에 유리한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생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취업 후 연봉에 따라 교육비를 상환받을 수 있는 소득공유 후불제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Income Share Agreements

Pay \$0 tuition until you land
a high paying job.

소득공유 후불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코딩 부트캠프 람다스쿨의 ISA
안내페이지

2016년에 설립된 Lambda School은 코딩 교육 부트캠프로, 소득공유 후불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성장을 거듭하면서 직업교육 분야에 소득공유 후불제를 성공적으로 접목한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⁸

기술의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대학 졸업장의 전통적인 내구성(durability)이 점차 줄어들어 취업을 예전만큼 보장해주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 적응을 위한 고비용 몰입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공교육 영역 밖의 직무교육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국가나 기존 시스템의 지원이 미비한 것이 현실인데, 소득공유 후불제가 새로운 대안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Lambda School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https://lambdaschool.com/>

소득공유 후불제 생태계

소득공유 후불제 솔루션 및 금융 기업의 등장

소득공유 후불제는 학생 개인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교육기관과 상생할 수 있도록 성장지표를 공유하며,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만 납부한다는 유연함이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금융 모델의 설계와 납부 관리 등 운영의 복잡성,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소득공유 후불제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 자연스럽게 소득공유 후불제 솔루션 및 전문 금융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담당하는 전문 영역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기관과의 컨설팅을 통해 소득공유 후불제에 적절한 교육 과정을 선별
- 소득공유 지분율, 약정 기간, 최대한도금액 등을 설계/운영
- 소득공유 후불제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투자금의 펀딩
- 소득공유 후불제 전용 투자 플랫폼의 운영

Vemo Education

2015년에 설립된 Vemo Education은 현재 미국에서 소득공유 후불제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앞서 살펴 본 2016년 퍼듀대 Back a Boiler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대학과 부트캠프를 비롯한 30여개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소득공유 후불제 프로그램을 설계/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억달러 이상의 소득공유 후불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⁹

Leif

Vemo Education과 더불어 2017년에 설립된 Leif는, 프로그래밍/항공/의료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 소득공유 후불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기준 150여개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1만3천여명의 학생들에게 1억5천만 달러 이상의 소득공유 후불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¹⁰

Edly

2019년에 설립된 edly는 교육기관과 투자자를 매개하는 소득공유 후불제 투자 플랫폼 기업입니다. 대학/부트캠프 등 교육기관에 소득공유 후불제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2,500명의 학생들에게 소득공유 후불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2020년 8월 기간에 연 18.65% 투자수익률을 공시하고 있습니다.¹¹

9. <https://vemoeducation.com/>

10. <https://leif.org/>

11. <https://www.edly.co/>

소득공유 후불제의 소셜 임팩트와 성장세



출처: Gallagher, J. (2020). State of the Bootcamp Market Report 2020, Career Karma

2020년 현재 소득공유 후불제 생태계는 교육기관(대학, 부트캠프 등 취업교육기관), 소득공유 후불제 솔루션 및 투자 플랫폼 기업, 그리고 투자 자본 및 싱크탱크들이 각각의 전문영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유 후불제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자금을 조달하여 성장해가고 있고, 교육기회와 경제적 이동성을 늘리는 소셜 임팩트가 주목받으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적 모델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소득공유 후불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불로 교육비가 확보되는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다양한 자본이 투자되고 있고 새로운 투자 모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학자금 투자 자본인 대학 재단 외에 자선기관, 벤처캐피탈, 임팩트 투자자, 공적기금 등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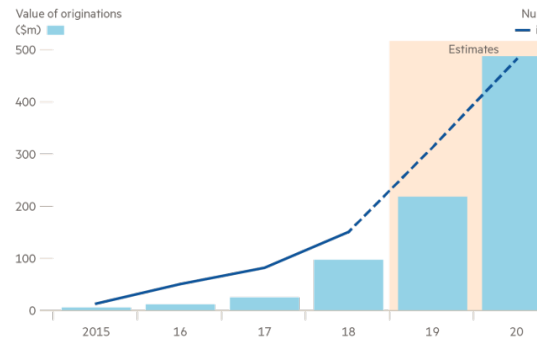
재단 등 자선기관들이 기부 형식의 장학금뿐 아니라 소득공유 후불제에도 주목하는 것은 미래지향성 때문입니다. 1회성으로 끝나는 장학금과는 달리, 소득공유 후불제를 선택한 학생이 성공적으로 상환하면, 다시 새로운 학생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관은 학생의 교육 결과에 장기적으로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졸업한 학생이 소득이 좋은 직업을 가져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래 지향성은 소득공유 후불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 소득공유 후불제를 위해 조성한 펀드를 '재생가능한 학습 펀드(Renewable Learning Funds)'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¹² 투자를 활용하여 상록기금(Evergreen Fund)를 만들면, 미래의 학습자가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상록기금의 사례로 Google.org, Strada Education Network, James Irvine Foundation의 후원으로 2019년 봄에 시작된 Workforce ISA Fund는 '재생가능한 학습 펀드'를 표명하며, 취업 후 상환금이 펀드에 바로 들어가 미래의 학생에게 계속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¹³

12. Michael B. Horn, Here's How 'Renewable Learning Funds' Can Transform Workforce Development, Forbes, 2017.12.13

13. Andy Hall et al. "Renewable Learning: How A New Partnership is Taking a Sustainable Approach to Workforce Development", U.S. Chamber of Commerce Foundation, 2019.10.22

ISAs are gaining traction in the US



공공 및 비영리 영역에까지 관심을 받으며 시장 규모가 급성장, 2020년은 소득공유 후불제 확산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Shares in students: nifty finance or indentured servitude?", Financial Times, 2019.11.12

벤처캐피탈의 소득공유 후불제 교육기관 및 솔루션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공유 후불제 투자 플랫폼 기업 edly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미국 내 소득공유 후불제 시장규모는 5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여지듯 시장규모는 2019년을 기점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시작해서 취업교육 기관으로 확산되면서 소득공유 후불제 시장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듯, 노동시장이 긴축되고 기술 변화의 속도가 가속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공유 후불제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개인과 커리어 전환을 원하는 개인 모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한 지출에 투자할 때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미국 밀레니얼 비영리 단체인 Young Invincibles가 고등교육 및 그에 따른 비용 문제 인식에 관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66%는 월 소득의 10%를 지불하는 소득기반 지불방식(income-based plan)을 이용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¹⁴

미국 내에서도 소득공유 후불제는 아직 보편적인 교육비 지불 모델이 아니므로, 이 설문지의 응답자들이 소득공유 후불제를 정확히 인식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금융영역에서 후불/할부 방식의 핀테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교육 금융 영역에서도 소득공유 후불제 방식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지도와 선호도는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14. Young Invincibles, "A Vote For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A Policy Agenda for 2018", 2018.6

소득공유 후불제 국내 현황

학자금 대출 개선안으로 떠오른 소득나눔 학자금 발의

미국 등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소득공유 후불제가 논의되고 도입된 데 비해, 국내에서는 비교적 최근어야 소개되었으며, 취업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조금씩 시도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득공유 후불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계기는 2018년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을 소득공유 후불제 방식을 도입하고자 했으며, 이 법안을 계기로 국회, 정부에서도 소득공유후불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한국장학재단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생에게 투자금 형식으로 학자금을 지급하고 취업 등으로 일정 소득금액 이상이 발생한 경우 소득의 일정 부분을 회수하는 소득나눔 학자금 지급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나눔 학자금 지급 지원계정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 학생들이 과도한 부채부담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¹⁵

다만 이 법안은 소득나눔 학자금의 구체적 운영이 담겨있지 않아, 정부의 출연금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및 예산정책처 의견서에서 지적되었고,¹⁶ 아쉽게도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습니다.

서비스 복잡성이라는 과제

국내에는 아직 대학이 소득공유 후불제를 도입한 사례는 없고, 소수의 취업교육기관이 교육비 지불방식의 하나로 소득공유 후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이 직접 이를 운영할 경우, 교육 이외 추가적인 관리 업무 부담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소득공유 후불제 전문 솔루션 및 금융 업체가 발전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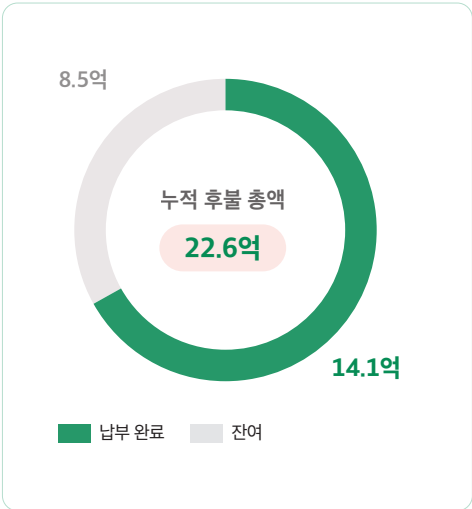
1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학생독립만세의 소득공유 후불제

2020. 09. 22 기준 후불제 운영 현황

누적 후불액 및 납부율



누적 학생수



도입을 넘어 데이터 고도화로

학생독립만세는 2018년 11월 항공 지상직 교육을 시작으로 취업교육 과정에 교육비 후불 솔루션을 제공해왔습니다. 교육 분야는 코딩 부트캠프, 디지털 마케팅, 디자인, 영상 등 4차산업 관련 교육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22일 기준, 학생독립만세의 교육비 후불제를 통한 누적 후불 총액은 22.6억원, 누적 학생 수는 1,574명입니다.

학생독립만세는 모집에서 납부 완료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교육비 후불제의 긴 과정에서 축적되는 정성적/정량적 데이터를 관리하고, 교육비 후불제 솔루션을 고도화 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점차 더 많은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후불제의 혁신

한편, 지난 2년간 학생독립만세가 교육비 후불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얻은 큰 배움은 교육 금융이 리스크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신용거래가 적은 청년세대의 경우 NICE5 등급으로 간주되는데, 이 등급의 부도율은 2.54%입니다. 반면 학생독립만세의 누적 부도율은 0.23% 입니다. 약 10배의 부도율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관계 금융**
교육을 통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취업할 때 까지 교육기관의 지원이 계속되고 동료간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취업 이후 악의적으로 미납하는 경우의 수가 감소됩니다.
- ✓ **현금 대출이 아닌 교육 후불**
교육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 **이중 심사 시스템**
 학생독립만세의 심사와 교육기관의 **심사가 이중으로 이뤄집니다.**
- ✓ **소액신용 대출과 흡사**
 취업교육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납부 포기 가능성이 낮습니다.**
- ✓ **소득 공유 후불**
 소득이 없거나 적을 때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상환금액도 소득에 비례하므로 **지불가능성이 큼니다.**

이러한 결론을 기반으로 학생독립만세는 안정적으로 후불 재원을 조달하여 교육비 후불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내 최초 소득공유 펀드를 조성중입니다.¹⁷

17. 학생독립만세 보도자료, "학생독립만세, 국내 최초로 소득공유(ISA) 펀드 조성 중", 2020.9.15

교육비 후불 서비스

학생독립만세는 교육기관이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교육비 후불 솔루션을 설계/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은 안정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수강생을 유치하며, 학생들은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선택합니다.

교육비 후불 서비스는 설계-모집-심사-교육-납부관리 과정 중 교육기관이 담당하는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에 걸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01. 설계

교육분야와 과정에 맞는 소득공유 후불제 모델링을 합니다. 취업률, 평균급여, 평균취업 소요기간, 손실률 등을 고려하여 설계됩니다.

02. 모집

교육비 후불 솔루션은 학생과 교육기관을 잇는 플랫폼 역할도 담당합니다. 교육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 맞춤형 모집 페이지 제작/운영하며,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소득공유 후불제 설명과 예시, 소득공유 후불제 계산기, 교육과정 상세설명 및 후기를 제공합니다.

03. 심사

심사는 지원동기 검토, HEXACO 검사, 구직 효능감 검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과정을 통해 수강 후 취업 가능성, 후불 납부 성실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누적된 심사데이터를 토대로 점수화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고, 표준 점수 이상인 지원자에 한해 교육비 후불 계약이 체결됩니다. 모든 심사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04. 납부관리

교육기관, 학생 각각의 후불 납부 관리 콘솔을 지원하여, 매달 납부 예정액 및 납부 내역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게 납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 소득을 투자자에게 수익을 자원 선순환 촉매 혁신을 시도하다.

후발주자가 미미하고 꾸준한 혁신 시도를 통해 시장의 주도권을 전복할 수 있다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론으로 유명한 하버드대 Clayton Christensen 교수는 이 이론에 임팩트 가치를 접목, 소셜 섹터에 적용할 수 있는 촉매적 혁신(catalytic innovation)을 고안한 바 있습니다.

최근 소득공유 후불제가 촉매적 혁신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¹⁸ 이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촉매적 혁신의 특성 중 새로운 자원의 생성(generating resources)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소득공유 후불제를 통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예상한 성과를 내고 약정 금액을 상환할 경우 투자자나 기관은 수익을 돌려받아 다른 학생에게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이 기대보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더 많은 상환 금액이 누적되고, 소득공유 후불제 펀드는 진화하게 되는데, 이는 학생의 성공과 펀드의 성공이 연결되어 재무적 원천(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1회적으로 끝나는 보조금이나 장학금과는 다른, 지속적 성장 가능성과 자원 생성 효과(소득/수익 창출효과)는 소득공유 후불제가 재무적 측면과 소셜 임팩트 측면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최근, 교육비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공/자선 펀드가 자본 조달에 참여하는 혼합금융(blended finance)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등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펼쳐온 Social Finance 는 최근 소득공유 후불제 스케일 업 프로

젝트 'Career Impact Bond'¹⁹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천만 달러의 촉매 자본(catalytic capital)으로 향후 3년간 5천 명 이상의 학생에게 소득공유 후불제를 통해 교육 및 경력 개발 기회를 안정적이며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ocial Finance 의 경우와 같이, 소득공유 후불제가 민간 자본을 소셜 임팩트 섹터로 이끌어 새로운 투자 기회와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임팩트 투자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²⁰

아직 국내에서는 소득공유 후불제를 확대하기 위한 민간/공공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공익자금 투입,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소득공유 후불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소득공유후불제 생태계에 다양한 투자 자본이 참여하고, 정책적 논의가 활성화되어, 교육 뿐 아니라 청년을 위한 다양한 금융 영역에 소득공유 후불제가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학생독립만세는 앞으로도 청년의 성장과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연결하는 촉매로서, 소득공유 후불제의 혁신을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에 학생, 청년들을 위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18. Lauren Marie Schachar, "Financial the Future Emerging Role of Income Share Agreement in Higher Education", pp. 223-236,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9.

19. <https://socialfinance.org/career-impact-bonds/>

20. Ladislav de Guerre et al, "How income-sharing agreements can improve access to education", World Economic Forum, 2020.7.1.

학생독립만세

2018년 3월 “학생이 학생만의 힘으로 원하는 양질의 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는 미션을 추구하며 학생독립만세를 설립했습니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득공유 후불제를 도입, 교육비 지불방식에 혁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는 항공 지상직 교육을 시작으로, 코딩 부트캠프, 디지털 마케팅, 디자인, 영상 등 기술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제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22일 기준, 학생독립만세의 교육비 후불 솔루션을 통한 누적 후불 총액은 22.6억 원, 누적 학생 수는 약 1,575명입니다.

학생독립만세는 2019년에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금융위원장상), 매경 핀테크 어워드 우수상을 수상하고, 2020년에는 SK 임팩트유니콘에 선정되는 등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인정받아왔습니다.